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졌지만 잘 싸웠다

부산에 패하며 PO 3위 마감  
원선필 등 주전 공백 아쉬워  
29일부터 전국체전 모드로

광주도시공사가 챔피언결정전 3위로 올시즌을 마감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시청 공단과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PO)에서 22-28(14-12, 8-16)로 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챔피언결정전 최종 3위에 올랐다. 주전 원선필과 서아루, 송혜수가 부상으로 빠진 광주가 반전의 기회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주도시공사가 22-28(14-12, 8-16)로 졌다. 14-12로 전반전을 마쳤으나 후반 체력과 득점력에서 밀렸다.

챔피언결정전 3위에 그쳤지만 광주도시공사는 3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위업을 이뤘다. 선수들은 올시즌 개막을 앞두고 "올해 반드시 우승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

예상대로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13연승을 질주하며 우승 후보다운 파괴력을 선보였다.

하지만 주전들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주전 공백에도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오세일 감독은 백업요원 김지혜와 김근순을 번갈아 투입하며 전력 누수를 극복하는 용병술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다 큰 경기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3위에 올랐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이다 보니 부담이 컸던 것 같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소집 훈련에 돌입, 전국체전 등을 준비한다.

오는 10월께 부상 치료 중이던 원선필과 서아루가 코트에 복귀할 전망이어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한편, 삼척시청은 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3전 2승제) 2차전에서 부산시청공단에 30-25로 이겼다.

이틀 전 열린 1차전에서 30-26으로 승리한 삼척시청은 이날 2차전 승리로 챔피언 우승을 확정했다. 정규리그에서 1위를 한 삼척시청은 두 시즌 연속 통합우승도 이뤘다.

2013시즌에도 우수한 삼척시청은 통산 우승 횟수를 3회로 늘리며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한 인천시청(4회)과 격차를 1회로 좁혔다.

삼척시청은 슈퍼리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열린 2009, 2010시즌 기록까지 더하면 역대 가장 많은 5번째로 챔피언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사발렌카 '설욕'

마드리드오픈 테니스 우승  
시비웅테크 2-1로 제압  
시즌 3승·우승 상금 16억

아리나 사발렌카(2위·벨라루스)가 이가 시비웅테크(1위·폴란드)에 2주 만에 설욕하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770만5780 유로) 정상에 올랐다.

사발렌카는 7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시비웅테크를 2-1(6-3 3-6 6-3)로 제압했다.

2주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포르세그랑프리 결승에서는 시비웅테크에 0-2(3-6 4-6)로 패했던 사발렌카는 시비웅테크와 상대 전적을 3승 5패로 만회했다.

이번 마드리드 대회 우승 상금은 110만 5265 유로(약 16억원)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마드리드오픈 패권을 탈환한 사발렌카는 올해 1월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호주오픈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시비웅테크는 이날 사발렌카에게 졌지만 여전히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에반 킹-리즈 슈탈더, 광주오픈테니스 복식 우승

호주 앤드류 해리스-존 패트릭 스미스 조 2-0 격파

에반 킹-리즈 슈탈더 조가 2023 광주오픈 복식 정상에 올랐다.

에반 킹(미국·복식 세계 랭킹 138위)-리즈 슈탈더(미국·110위) 조는 지난 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앤드류 해리스(호주·117위)-존 패트릭 스미스(호주·102위) 조를 2-0(6-4, 6-2)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두 사람이 복식조를 이뤄 챌린저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열린 마스팔로마스 챌린저 이후 두 번째다. 개인 통산으로는 킹은 지난해 5월 트로이스도르프 챌린저, 슈탈더는 지난해 8월 산토도밍고 챌린저를 포함해 모두 세 번째 우승했다.

이들은 마스팔로마스를 포함해 트로이스도르프와 산토도밍고 모두 클레이코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나 하드코트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복식 2번 시드를 배정받은 킹과 슈탈더는 1번 시드인 해리스와 스미스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견고한 수비로 1시간 7분 14초 만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킹-슈탈더 조는 16강에서 가브리엘 디알로(캐나다·1178위)-알렉산드르 부키치(호주·1271위) 조를 2-0(6-4, 6-4)으로 완파했고, 8강에서는 데인 켈리(호주·692위)-맥스 퍼셀(호주·58위) 조를 2-1(6-3, 3-6, 10-6)로 따돌렸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3번 시드를 배정받은 아니루드 찬드라세카르(인도·129위)-비제이 순다르 프라산스(인도·148위) 조를 만나 2-0(6-4, 6-3)으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에반 킹-리즈 슈탈더 조가 지난 6일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우승한 뒤 청자 우승트로피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킹과 슈탈더는 "이들 동안 비가 내려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승전도 어려웠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우승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오픈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광주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만족스럽다"며 "대회 관계자들과 볼 퍼슨, 통역, 마케터들의 원활한 일처리와 철저한 준비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어지는 부산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도하 2위' 이상혁 "이제는 항저우"

9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위해 귀국

카타르 도하에서 시즌 첫 실외 경기를 한 이상혁이 9일 예전에서 올해 첫 국내 경기를 치른다.

이상혁은 지난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수하임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남자높이뛰기 경기에서 2m27을 넘어, 2m32를 뚫은 호주 해리스(24·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르심(31·카타르)은 2m24로 3위에 자리했다.

이상혁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북 예천 스타디움으로 이동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2023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상혁을 위해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경기는 9일 오전 11시로 편성됐다.

이상혁은 한국 육상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이 가장 유력한 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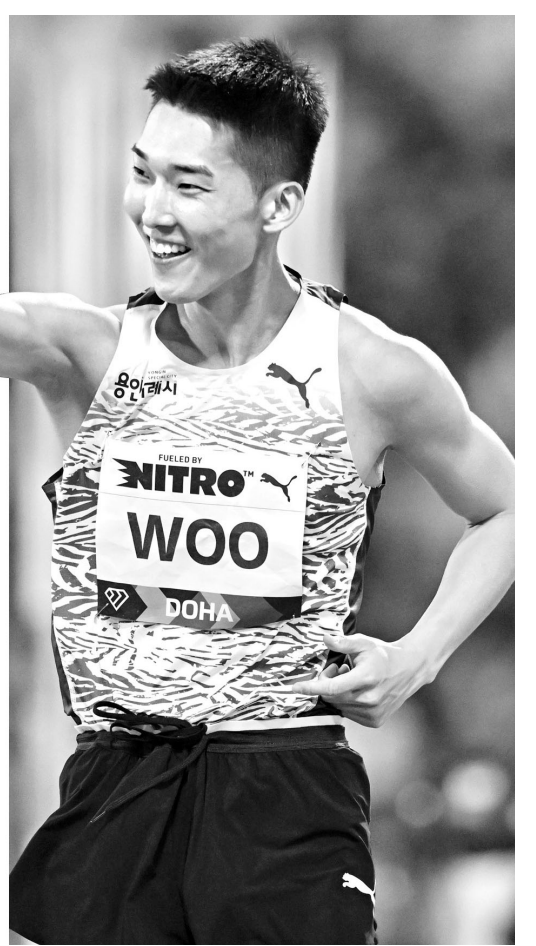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혁도 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대한육상연맹은 이미 지난 3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대회(KBS배)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연맹은 도하 다이아몬드리그에 출전하는 이상혁의 일정을 고려해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경기를 KBS배 마지막 날 편성했다. 우수 선수 관리와 공정성 사이에서 고민한 연맹이 이상혁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이상혁도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다.

이상혁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는 선수가 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나는



경기에 출전하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 뻘뻘한 일정은 선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도균 코치는 늘 이상혁에게 "네가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광주상설공연  
2023. 5월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All that love  
이중섭 3.5

11시 음악산책  
'을 댕 러브 III 이중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